

## “팬데믹 이후 한인 41% 물리적 공격 위협 느껴”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의 41%가 물리적 공격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스탠퍼드 보건대학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CARE)의 공동 소장이자 이 대학 의대 교수인 브라이언트 린 박사는 비영리단체 에스너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학 연구자들이 아시안보건저널(Journal of Asian Health)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발표했다. 논문은 2020년 1,861명의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정서에 따른 물리적 공격 위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응답자 가운데 한인은 83명으로 총 응답자의 6%였다.

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이는 베트남(58%), 중국계(51%)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한인은 대조군인 백인에 비해 물리적 공격을 당할 위협을 4.4배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중국계와 같은 수치이며, 베트남계가 5.4배로 가장 높았다.

논문은 코로나19기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베트남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반중 정서,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공격당할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반중 정서가 중국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shutterstock

## FDA ‘감기약으로 치킨 요리’ 유행에 “폐 손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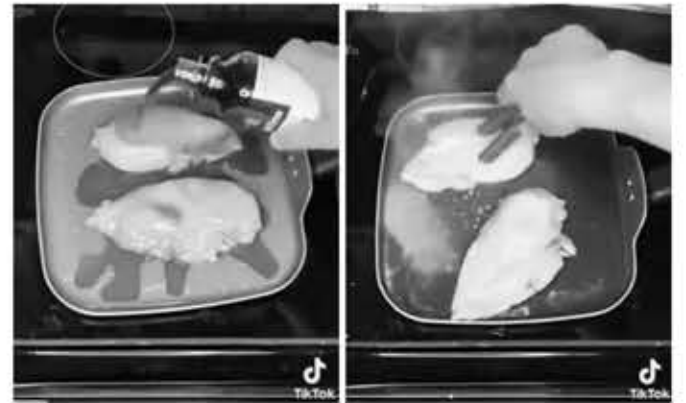
감기약으로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소셜미디어(SNS) 챗린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확산하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틱톡에서는 최근 미국산 종합감기약 ‘나이퀸’ (NyQuil)에 재운 닭가슴살을 요리하는 이른바 ‘슬리피 치킨’ (Sleepy Chicken) 챗린지 동영상이 급증했다. 나이퀸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기침·콧물 등 감기 증상 치료에 쓰인다. 아세트아미노펜, 텍스트로메토르판 등이 주요 성분이다.

특히 이 약에 포함된 독살아민 성분은 진정 작용을 일으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 챗린지 이름에 ‘졸립다’는 의미의 ‘슬리피’가 들어간 이유다.

틱톡 이용자들은 나이퀸에 버무린 치킨을 먹으면 감기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약이 가열되면 약 내 성분의 농도와 특성이 변형돼 인체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



▲ 감기약으로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소셜미디어(SNS) 챗린지가 확산하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nbrightnow.com

고 FDA는 지적했다.

FDA는 성명에서 “닭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요리 중에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약물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며 “이는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도 오남용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SNS 챗린지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더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직장인 일터 복귀 가속화

미국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건물 보안관리 회사 캐슬 시스템이 지난 8~14일 10대 대도시권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은 2020년 초 수준의 47.5%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사무실 보안 출입증 사용 기록을 추적해 이같이 집계했다.

이 기간 미국의 대도시 사무실 점유율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WSJ은 전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의 사무실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의 55%까지 회복됐다.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는 9월 초 노동절 연휴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대도시권에서는 사무실 점유율이 38%에서 노동절 직후 46.6%로 꺾중 뒀다.

사무실 복귀가 가장 빠른 편인 텍사스주에서도 노동절 이후 직장인 출근이 더욱 늘어났다. 사무실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휴대전화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트럴휴스턴’에 따르면 휴스턴 도심의 직장인 출근 비율은 최근 5개월간 50%대에 머무르다 노동절 이후 63%로 상승했다.

사무실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출근하는 직장인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IT 기업들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에서는 노동절 이후에도 사무실 점유율이 전주보다 2.3% 증가한 40.7%에 머물렀다.

### 날말퍼즐 정답

1	하	마	2	평			3	대	통령			
	위		4	일	5	석	이	조		6	정	
	권			빙			7	영	8	웅	심	
		9	보	유	고					덩		
			따			10	패	랭	이			
11	무	리	12	수		거					13	헛
	효		14	호	텔	리	15	어			수	
		16	삭	신				17	민	생	고	

### 숨은그림찾기 정답

